

민주 '사면론' 여진... "성난 민심에 기름" "이 대표 고심 이해"

“국민 통합 위한 충정의 발로”

한 발 뺀 이낙연... 일단 봉합

비판·아쉬움... 당내 다양한 목소리

더불어민주당은 4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논의와 관련, '반성이 먼저'라며 한 발 뺀 입장을 보였지만 당내에서는 여진이 계속됐다. 이낙연 대표가 밝힌 사면 논의가 큰 틀에서의 '국민통합'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일단 사면에 대해서는 '정당한 절차와 논의 과정을 밟겠다'며 봉합에 나섰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이와 관련된 특별한 언급은 없었지만 전날 진행된 최고위원 간담회에서 자신의 발언이 '국민 통합을 위한 충정의 발로'임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자들이 따르면 이 대표는 총리 시절부터 지켜본 광화문의 국민 분열, 최근 코로나19 백신 도입을 둘러싼 갈등과 같이 방역 문제조차 정쟁화되

는 세대 등에 안타까움을 토로하며 문제의식을 설명했다. 사면 건의 역시 "무조건이 아니라 그런 여건이 성숙하면 하겠다"는 뜻이다"고 밝혔다.

한 최고위원은 "사면복권이 국민통합을 위해 필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고 말했다. 다만 상당수 최고위원은 사면을 위해선 당원은 물론이고 국민들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돼야 하고, 이를 위해선 두 전직 대통령의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당내에서는 여진이 계속됐다. 사면론 자체에 대한 비판부터 논의 과정의 아쉬움, 이낙연 대표의 충정을 이해한다는 의견까지 다양한 목소리가 이어졌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4일 최고위 회의에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검찰총장 탄핵,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등과 같은 중대한 사안은 더더욱 국민 상식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조급함을 절박함으로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안민석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물지마 식의 사면은 동의할 수 없다"며 "정경심 교수 구속과 윤석

열 검찰총장 복귀로 화난 민심에 사면 이야기가 기름을 부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설훈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을 끝내고 얘기했다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이 대표의 고심을 한편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사면론에 반대했던 우상호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이 대표가 정치적 계산과 수로만 이 문제를 접근했을 거라고 보지 않는다"며 "국무총리까지 하신 국가 지도자로서 자꾸 갈등으로 분열되는 것에 대한 통찰이 있으셨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최고위를 마친 뒤 "오늘 사면 관련 논의는 전혀 없었다"며 "의원들과 당원들 간 의견 공유가 진행되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단기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 있지만 통합과 전진이라는 이낙연의 정치적 색깔을 분명히 보여준 것"이라며 "국가적 화두를 분명히 했으니 앞으로 다각적인 정책적 제안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4일 강원도 원주역에서 열린 KTX 이음 개통식에서 열차 마스터키를 기관사 전성수 기장에게 전달한 뒤 경례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입주자·종사자 방역수칙 지키기 힘든 고령자 "초기증상 나타나더라도 일 할 수 밖에 없어요"

광주 요양시설 집단감염 왜?

확진자 하루 수십명씩 쏟아져

방역수칙·처벌 강화론 한계

근본적 근무 여건 개선 등 필요

광주지역 요양시설 관련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끊이지 않고 있다. 광주시는 그동안 선제적으로 요양시설 면회를 전면금지하고, 종사자의 타시설 방문·사적모임 금지 그리고 정기 전수조사 등 강도 높은 대책을 진행했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방역전문가들은 연이은 요양시설 집단발병의 근본 원인으로 ▲요양시설 종사자 중 상당수가 수시로 변하는 고도의 방역수칙을 따르는 데 한계가 있는 60대 이상 고령자라는 점과 ▲생계형 '일당제 또는 시간제' 보수 체계 탓에 초기증상이 발현하더라도 일을 할 수 밖에 없는 열악한 임금 구조 등을 지적하고 있다.

광주시는 요양시설 종사자에 대해 한층 강화한 방역수칙 적용과 함께 위반시 강력한 처벌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지만, 근본적인 근무 여건 개선 등이 없는 한 '공염불'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4일 광주시에 따르면 에버그린 요양원에서 지난달 21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뒤 입소자 24명, 효정요양병원에서는 지난 2일 이후 입원 환자

53명이 감염됐다. 지난달 21일부터 2주간 광주의 지역감염 확진자 332명 중 77명(23%)이 2개 시설에서 나왔다. 이 기간 하루 평균 확진자는 23.7명, 요양시설 확진자를 빼면 18.2명이다. 에버그린 요양원 집단 감염은 다소 진정됐지만, 효정요양병원은 현재 진행형이다. 앞서 지난해 7월에도 지역 내 요양원 2곳에서 20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바 있다.

현재로서는 사망자 최소화와 함께 또 다른 요양시설의 집단감염을 막는 것이 시급하지만, 출퇴근을 하는 종사자별 감염원 차단에는 한계가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광주에는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노인 주간보호시설 등 252곳에서 종사자와 이용자 2만8217명이 상주하고 있는데, 1주 간격 정기 전수검사에도 효정요양병원처럼 집단감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여전히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이날 민관공동대책위원회를 열어 취약시설 전담제를 실시해 직접 방역수칙 계도·점검에 나서려는 한편 요양시설 등에서 방역수칙 위반 확인 시 시설주와 종사자를 엄정 처벌하기로 했다. 또 자치단체에서 방역수칙 위반자를 온정주의로 처리할 경우엔 감사를 통해 책임을 묻기로 했다.

광주시 북구 해어림요양병원을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으로 지정하고, 병상 30개와 의료진 81명을 확보해 6일부터 요양시설 확진자를 전담 치료토록 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요양시설 방역조치 강화

와 관련해 "어느 시점이 시민(요양시설 종사자)을 처벌하고 싶겠느냐"면서도 "99.9% 시민을 보호하려면 방역 수칙을 어기고 무책임한 0.1%를 강력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임을 인식하고 도와달라"고 말했다.

다만 광주시의 이 같은 조치가 요양시설 집단 감염을 막는 데 효과가 있을 지는 의문이다. 방역당국은 그동안 가족을 포함한 면회 자체를 전면 금지하는 등 환자들의 외부 접촉을 철저히 차단해 왔지만, 종사자를 매개로 한 감염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광주에서는 코로나19 초기 증상이 있는 종사자가 요양시설 근무를 강행하고,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줄어 있는 종교 시설을 방문한 사례도 있었다. 고령의 중증환자가 많은 요양시설 종사자에게는 코로나19 등 감염병을 막기 위한 높은 직업의식과 윤리관, 방역수칙 준수가 필수적이지만, 일부에선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상당수 요양병원(시설)의 요양보호사는 직접 고용이 아닌 생계형 일당제나 시간제로 근무를 하고 있고, 간병인은 환자가 자체적으로 고용하는 사례가 많아 고도의 방역수칙을 지키도록 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들의 연령대가 70대 고령까지 있다는 점도 방역 관리에 어려움이 따르는 부분"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일반 병원에 비해 낮은 요양병원의 보험 수가를 높여 종사자의 고용 형태 안정화를 유도하는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문 대통령 "올해는 저탄소·친환경 열차 보급 원년"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새해 첫 경제 일정으로 저탄소·친환경 고속열차 KTX-이음을 시승한 자리에서 "2029년까지 모든 디젤 여객기편차를 KTX-이음(EMU-260)으로 대체하겠다"며 "파리기후협약 첫해인 올해를 저탄소·친환경 열차 보급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철도교통 혁신 구상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올해 세계 철도시장 규모가 240조원에 달하고 고속철도 시장의 경우 연평균 2.9% 성장하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우리 철도가 세계 시장을 뚫어갈 수 있도록 최고의 기술과 안정성을 바탕으로 해외로 진출하는 데 발 벗고 나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철도를 비롯한 교통인프라 강국이

되고 디지털 뉴딜로 안전하고 스마트한 교통혁신 국가로 거듭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KTX-이음을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결합으로 평가하면서 "앞으로 한국판 뉴딜이 더 빠른 속도로 나아가고, 탄소중립 사회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철도망 확충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앞당기겠다"며 "2025년까지 70조원 이상을 투자해 고속철도, 간선철도망, 대도시·광역도시 철도사업에 더욱 속도를 낼 것

으로, 이를 통해 전국 주요 도시를 2시간대로 연결하고 수도권 통근 시간을 30분 내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與, 3차 재난지원금 설 이전 신속 지급 방침

당내 전국민 지급 논의 주장도

더불어민주당이 3차 재난지원금을 설 이전에 대부분 지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당 내부에서는 전국민재난위로금 지급 논의도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4일 코로나19와 관련, "내 주부터 지급되는 3차 재난지원금 9조3000억원이 설 이전에 대부분 지급되도록 하겠다"면서 "그 다음에도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며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혁신성장, 신산업 육성을 위한 경제입법, 기업의 새로운 활력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한국판 뉴딜 관련 입법도 2월 국회까지는 처리해야겠다"며 "이번 주 국회에서는 중대재해법, 생활물류법, 4·3특별법, 아시아문화중심도시법 등

을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덧붙였다.

김태연 원내대표도 "6일 소상공인 버팀목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공고기 시작되고 빠르면 다음 주부터 집행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지난해 두 차례 지원금을 지급했던 만큼 3차 지원금은 보다 신속하게 지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는 올해 558조 원의 예산 중 상반기에 예산의 63%를 조기집행하고 495조 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고통이 극심한 임종과 개인에 대한 3차 재난지원금까지 더해 2차 전 국민 재난위로금 논의를 제안한다"면서 "일자리와 잃고 가계를 폐업하고 생활고로 생사기로 내몰린 국민이 많다. 이분들을 외면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201210-중-116876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개원 18주년!!

2021년 신축년 첨단우리병원은 철저한 **감염관리**와 세심한 **회복관리**를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가 가능!

첨단우리병원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 전국100개 인증업체선정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광주전남 기능장 1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특수가발 별매 (윈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기술. 1만명 이상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H.M사
등급제품 **130만원**
59만원~

광주 남구 주월동 1199-12 라인가든아파트 상가 2층(대광여고 옆)
062.673.5858 (모발모발)